

## 한국어와 스페인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거짓 짝 연구

조 혜 진

**Cho Hyejin.** 2017. 6. 30. **A Study of False Friends in Korean and Spanish Phraseology with Body Parts Names.** *Bilingual Research* 67, 309-33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lse friends of Korean and Spanish phraseological units(PhUs). We analyze the PhUs which contain body parts names that, at first glance, appear morphologically,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very similar. However, according to a series of qualitative analysis, those PhUs are not absolute equivalents but reveal differences in its figurative meaning. Moreover, this study attempts to show the possibility of forming false friends if we do not take into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pragmatic use of the phraseology an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communities. The approach is based on semantic criteria and aims to provide a common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false friends which will help in learning Spanish phraseology or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spanish as a foreign language(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phraseology (관용표현), false friend(거짓 짝), body parts names(신체 부위명), contrast(대조)

### 1. 서론

한국의 대부분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인 한국어를 매개로 목적어인 스페인어를 습득한다. 이와 같은 언어 간 접촉에서 두 언어는 상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간섭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출발어인 모국어의 특성을 학습 중인 외국어가

공유한다면 그 목표어를 학습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언어 간의 유사성이 번역이나 외국어 학습자의 발화에 혼동을 일으켜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언어 간섭 현상에 의한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는 외국어 교수-학습과 번역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민해왔다. 이런 관점 하에 ‘거짓 짝’(falso amigo), ‘거짓 동족어’(falso cognado) 또한 그릇된 번역이나 이해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 외국어 학습의 걸림돌로 간주된다.

1928년 Koessler와 Derocquigny의 저서 *Les Faux Amis*<sup>1)</sup> 출간 이후, falso amigo와 falso cognado는 ‘형태상으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만 상이한 의미와 쓰임을 갖는 두 언어의 어휘’(Prado 1989:721)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 되었다.

사실 ‘동족어’(cognado)와 거짓 동족어는 외국어 학습이나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lor(스페인어) - colour(영어) - couleur(프랑스어) - culoare(루마니아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상이한 언어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의미와 철자 구조를 가진 어휘를 가리키는 동족어는 외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 동족어의 경우는 그와 상반된 결과로 귀결되기도 하므로 문제시되는 요소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librería(스페인어) - library(영어)와 같이 형태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의미는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족어 관계에서 성립되는 이러한 특성의 어휘를 거짓 동족어라고 한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발생 계통적 측면에서 무관한 언어들이므로 동일한 어원에서 발생한 고유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족어(同族語)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나 구조, 의미상으로 등가적인 관용표현이 존재하며, 또한 형태적 유사성에도 불가하고 상

1) 프랑스어를 직역하면 ‘거짓 친구’를 뜻한다.

이한 의미로 쓰이는 사례도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을 밝히고 거짓 짝에 대한 교수법적 관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이나 번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인지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개별 어휘의 의미와 형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말했다시피 관용표현은 구조적 특성상 단일 어휘가 될 수 없고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친족어가 아니므로 ‘동족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명칭에 대해 추후에 논의하겠으나 본 연구는 친족어가 아닌 언어들 간의 대조 연구이므로 ‘동족어’나 ‘거짓 동족어’라는 명칭 대신 그 의미와 기능의 명료한 전달을 위해 ‘등가어(equivalente)’와 ‘거짓 짝(falso amig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짝’은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또는 그중의 하나’를 뜻하므로 조음관계인 한국어와 스페인어 관용표현을 올바른 ‘짝’이자 등가어라고 본다면, 형태적 유사성과 달리 실제로는 조음쌍이 아닌 경우는 ‘거짓 짝’으로 칭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친족어나 근친어 간에 성립하는 동족어나 거짓 동족어에 대한 관심은 어휘부 습득이나 번역의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외국어 학습에서도 이들 간의 식별 능력이 요구된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어휘, 즉 동족어를 기반으로 목표어를 인지하고자 할 때 거짓 동족어가 목표어의 적절한 이해와 해석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terrific*(영어) - *terrorífico*(스페인어)<sup>2)</sup>는 형태상으로는 유사하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구분 없이 사용할 경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2) • *terrific adjective*: 1. (informal) excellent; wonderful. 2. (informal) very large; very great. (Oxford Learner's Dictionary)

• *terrorífico*, ca: 1. adj. Que infunde terror. 2. adj. coloq. espantoso (|| desmesurado). Unos precios *terroríficos*. (DRAE)

거짓 동족어는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거짓 동족어의 존재와 그 사용 양상에 대한 인지는 학습자의 어휘 구사력이나 읽기 능력 증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족어나 거짓 동족어에 대한 연구는 어원과 역사·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유럽과 미국에 집중되어 왔는데, 스페인어의 경우 이론적 고찰보다는 동일한 라틴어 계통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과의 대조 연구(Luque Toro 2013, Gonzalo Velasco 2012, Feijóo Hoyos 1992, Fernández Bechara 2002), 영어와의 대조 연구(Nagy *et al.* 1993, Postigo Pinazo 1997, Chacón Beltrán 2001) 등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어 습득에서 동족어와 거짓 동족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각과 분별을 강조한다. 한편, 한국에서도 김경희(2008), 유은정(2008)이 영어 동족어와 거짓 동족어가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관용표현과 같은 구문의 차원에서 실행된 연구는 전무하며, 스페인어에서도 관용표현 관련 연구는 언어 간 대조에 그칠 뿐 거짓 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발견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또한 오늘날 영어가 비게르만어 계통 언어들, 더 나아가 비인도유럽어 계통 언어들에게까지 미치는 막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감안한다면 거짓 짝에 대한 연구 영역을 동족어에만 국한하지 말아야한다고 판단된다.

인간의 인지체계를 구성하는 감각, 경험, 가치체계 등이 어휘나 구문 고유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 공통의 인지체계는 상이한 언어라 할지라도 유사한 관용표현 형성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화용적 측면에서의 의미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사한 형태의 관용표현이 그 성구적 의미까지도 유사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언어를 구조화하는 인지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거짓 짝으로 분류 가능한 관용표현의 사례에 대해서도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적 결과물 이면의 문화보편적이거나 문화특수적인 인지적 배경에 대해 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관용표현과 대부분의 예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후 『표준』)과 관용구 사전, 스페인 한림원 사전(이후 DRAE),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actual Clave*(이후 Clave), *Diccionario de María Moliner*(이후 Moliner), 관용표현 사전인 *Diccionario de dichos y frases hechas*(Buitrago Jiménez 1999), *Diccionario fraseológico del español moderno*(Varela와 Kubarth 1996), *Diccionario fraseológico documentado del español actual*(Seco et al. 2005)에서 추출하였음을 밝혀둔다.

## 2. 관용표현

일반적으로 관용표현(*unidades fraseológicas*)은 통사적으로 고착화된 어휘결합체를 가리키며 그 축자적(逐字的) 해석과 성구적(成句的) 의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어휘결합체와 비유적 의미 간의 자의적 관계는 전통적으로 관용표현을 발화의 규칙성에서 어긋난 예외적 형태로 간주하게 하였으나, 어휘부(*lexicón*)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관용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관용표현을 ‘반복된 담화(*discurso repetido*)’의 한 범주로 간주한 Coseriu(1977:113)에 의하면 이들은 첫째, 단일어든 복합어든 독립적인 어휘와는 다른 다중어휘적인(*poliléxico*) 특성을 갖는다. 둘째, 전체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단위로 기억하도록 하는 고착성을 갖는다. 셋째, 어휘적 불투명성, 즉 숙어성(熟語性)을 갖는다.

실제로 Coseriu의 정의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 대표적으로 Corpas Pastor(1996:269)는 관용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인 *fraseología*를 “최대한으로는 복합문이 될 수도 있는 2개 이상의 어휘로 구성된 어휘 단위를 연구하는 어휘론의 하위 범주”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관용표현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996:19-20): 첫째, 다수의 어휘로 구성된 표현이다. 둘째, 관습화되어있다. 셋째, 다양한 정도의 고정성을 보인다. 넷째, 통사적 또는 의미적으로 일정한 특성을 나타낸다. 다섯째, 구성 요소의 변이 가능성, 즉 어휘화된 변이형이 존재하거나 화맥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여러 어휘로 구성되고 통사적으로 고착 구조를 보이는 관용표현은 언어공동체마다 상이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독자적 해석의 합으로 총체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없으며, 통사적 고착성과 숙어성의 결과로 어휘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잦은 사용이 관용표현을 반복적으로 재생,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sup>3)</sup>

일반적으로 관용표현은 통사적인 영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어휘는 담화에서 즉흥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자의 어휘부에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 화자는 사회화 과정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이는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언어학에서는 관용표현을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거나 예외적인 형태”로 간주했다(Ruiz Gurillo 2001:108). 그러나 최근에는 관용표현이 언어 구조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심리언어학적 기제의 반영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관용표현의 뜻은 어휘가 아닌 인간의 인지 체계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용표현은 인간이 외부 현실을 파악, 분석하는 방법에 의거해 구성되므로 이들을 상호 연결된 존재로 판단한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에 형태적으로 유사한 관용표현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음은 그 일례이다.

3) 좀 더 상세한 설명은 Penadés Martínez(1999), Ruiz Gurillo(1997, 1998), Zuluaga(1980) 등을 참고할 것.

(1) <u>스페인어</u>	<u>한국어</u>
cerrar los ojos	눈(을) 감아주다
no pegar ojos	눈(을) 붙이지 못하다
en un abrir y cerrar de ojos	눈 깜짝할 사이
quebrar algo el corazón	(슬픔 등이) 가슴을 찢다
sacar la lengua a alguien	(~에게) 혀를 내밀다(비웃다)
meter el pie	발을 들여놓다
ser el brazo derecho de alguien	(~의) 오른팔이다
tener el corazón de pajarito	새가슴이다
morir como un perro	개죽음하다

한편, 역사나 문화, 사회적 배경이 다른 공동체의 언어인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관용표현에는 의미는 같으나 핵심어 구성이나 형태가 전혀 다른 사례나<sup>4)</sup> 형태나 구조상으로는 등가어로 보이지만 성구적 의미가 상이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 후자와 같은 거짓 짝은 학습자나 번역자로 하여금 쉽게 의미 일치를 짐작하게 하므로 오류나 실수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 3. 거짓 짝의 명칭 문제

*Faux amis*라는 명칭의 등장 이후, 여러 명칭들이 어원이나 의미 변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며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 이 언어 현상을 가리키는 합의된 명칭은 없다.

Mounin은 *Diccionario de la lingüística*(1982)에서 *falsos amigos*(*faux*

4) 일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No decir esta boca es mía* ‘찍소리도 하지 못하다’, (*alguien*) *tener (un par de) narices* ‘배짱이 두둑하다’, *ser pan comido* ‘식은 죽 먹기’. 이들은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한 등가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의미는 상이한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amis)에 대해 “어원이 같은 유사한 형태지만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의미가 다른 어휘들”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도 Mounin의 것과 대동소이한데, Alvar Ezquerro는 이를 falsos amigos로 지칭하며 “다르거나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닮은꼴의 형태이다. 어원상으로 친족 관계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언어에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가면서 다른 양상으로 발음되거나 쓰이기도 하는 어휘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2003:42).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falso amigo와 falso cognado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Prado(1989:721-22)는 cognado verdadero와 cognado falso를 구분하면서 후자를 falso amigo와 동일시하였고, García Yebra(1994:347)의 용어 사용도 Prado와 동일하다. Alonso dos Santos(2012:7-9)도 falso cognado와 falso amigo를 동일시하였는데, 그는 대부분의 영어 거짓 짝이 라틴어나 그리스어, 프랑스어와 공통의 어원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영어와 스페인어 거짓 짝을 예시하며 “동일한 형태의 어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나 일부만 다른 어휘들”이라고 정의하였다. Sabino(2006:251)도 falso cognado 또는 falso amigo가 일반적으로 동일한 언어 현상을 지칭하는데 쓰이므로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 언어 현상을 지칭할 이상적인 정의나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falso amigo의 범주에는 동일한 어원의 어휘는 물론 상이한 어원적 배경을 가진 어휘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Falso amigo와 falso cognado는 ‘언어 간 동음이의어’를 뜻하는 parónimo interlingüístico(Polo 2006:348), ‘거짓 유사어’를 뜻하는 falsa palabra similar(Lado 1973:82)로 지칭되기도 하였고, ‘거짓 등가어’를 뜻하는 falsa equivalencia, equivalencia aparente(Gallegos Rosillo 2008:91)로 지칭되기도 했다. 또한 Soares Alves(2002:7)는 “(이들은) 두 언어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의미를 갖지만 철자나 발음상의 유사점을 보이는 어휘들이다. 동일한 어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았고



heterosemántico(이[異]의미어)로 지칭한 바 있다.

이처럼 거짓 짝의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큰 차이가 없으며, 현재 통용되는 여러 명칭 또한 유사어나 동의어로 간주된다. 한편, 동족어에 대한 혼란이 없는 한국어 사전에는 동족어만 표제어로 등장할 뿐<sup>5)</sup>, 거짓 짝(거짓 동족어)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스페인어 사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한데, 표제어가 *cognado*가 아닌 *amigo, ga* 항목에 부가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falso amigo

1. m. Ling. Cada una de las dos palabras que, perteneciendo a dos lenguas diferentes, se asemejan mucho en la forma, pero difieren en el significado, y pueden dar lugar a errores de traducción.

• Diccionario CLAVE: falsos amigos

s.m.pl. Par de términos de distintas lenguas, y cuyo significado es distinto pese a tener forma parecida: La palabra inglesa ‘sensible’ y la española ‘sensible’ son falsos amigos porque la primera significa ‘sensato’.<sup>6)</sup>

한편, DRAE는 *cognado*, *da*도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5) 동족어(同族語). 『명사』 『언어』: 「1」같은 어근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단어들. 「2」같은 어족에 속한 언어. (『표준』)

6) 다른 사전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de María Moliner*: falso amigo

Palabra o expresión de una lengua extranjera que por ser similar a otra de la lengua propia puede ser interpretada incorrectamente.

• *Diccionario del español actual*: falsos amigos

(Ling.) Pareja de palabras o locuciones pertenecientes a dos lenguas diferentes, que por su semejanza formal y distinto significado suelen dar lugar a errores de traducción.

cognado, da (Del latín. cognātus) 1. adj. Gram. Emparentado morfológicamente. 2. m. y f. pariente por cognación

위의 사전들은 falso amigo의 의미를 표제어인 amigo, ga와의 연관성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 cognado, da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스페인어에서 falso amigo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이 같은 사실에서 유추해볼 수 있겠으나, 그 결과로 동족어는 cognado이고 거짓 짝(거짓 동족어)은 falso amigo로 제시되는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혼란을 준다.

#### 4. 한국어와 스페인어 관용표현의 거짓 짝

본 연구는 거짓 짝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한국어와 스페인어 관용표현의 핵심어를 신체 부위명으로 한정하였다.<sup>7)</sup> 그 이유는 이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인간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판단한 바에 의하여 형성된 가장 즉자적인 범주이기 때문이다.<sup>8)</sup>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어휘화 과정은 몸이나 자연 환경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요소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므로 관용표현에서 신체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가장 근본적인 범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7) ‘핵심어가 신체 부위명으로 구성된 관용표현’을 편의상 줄여서 ‘신체어 관용표현’으로 칭하기로 한다.

8) 일례로, Diccionario del español coloquial(Martín Sánchez 1997)에는 약 10440개의 관용표현이 74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 신체어 관용표현은 약 450여개이며, 감정·지적능력 관련 관용표현의 수는 3천여 개를 상회한다. 인간의 몸, 정신과 관련된 관용표현이 여타 의미장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감정이나 지적 능력과 관련된 관용표현까지 분석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고 본 연구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분석 영역이 광범위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어 관용표현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관용표현의 주요 생성 수단이 되는 비유언어는 단순한 수사학적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지적 방편이다. 이러한 비유 언어는 신체화된 경험에 기반하여 생성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은 언어공동체마다 상이한 신체어 관용표현을 형성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동족어는 친족어 관계의 언어들 간에 성립하는 개념이지만 거짓 짝은 계통상 무관한 언어들에서도 발견된다. Chamizo Domínguez (2009:1112)는 이들을 ‘우연’에 의해 발생한 “어원 상 무관한 둘이나 그 이상의 언어 간에 존재하는 기표”라고 보았다. 일례로, ‘살’-sal(소금), ‘오이’-hoy(오늘) 등이 어원과 무관한 거짓 짝에 해당하며, 또한 단일어에서도 이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sup>9)</sup>

한국어와 스페인어 관용표현에도 우연에 의해 발생한 거짓 짝이 존재한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와 *cazarlas/cogerlas alguien al vuelo*가 일례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다’는 ‘권세가 대단하여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인 반면, *cazarlas/cogerlas alguien al vuelo*는 ‘은밀히 실행하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을 빠르게 이해하거나 눈치 채다’(DRAE)를 뜻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성 어휘나 구문적 특성, 축자적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스페인어에서 거짓 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신체어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a. Lleva una época horrorosa y el pobre no levanta cabeza.

(그 불쌍한 사람은 끔찍한 시기를 보내며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9) 한국어에서 ‘말’(동물)-‘말’(언어), ‘눈’(신체 부위)-‘눈’(기상 현상), 스페인어에서 *cazar*(사냥하다)-*casar*(결혼시키다), *callado*(*callar* 동사의 과거분사)-*cayado*(지팡이) 등이 그 일례라 하겠다.

있다)

b.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들었다.

(2a), (2b)는 형태가 유사하고 축자적 해석도 모두 ‘머리를 들다’로 동일하다. 그러나 성구적으로 (2a) *levantar cabeza*는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다, 병에서 회복하다’(DRAE)를 뜻하는 반면, (2b) ‘머리를 들다’는 ‘놀려 있거나 숨겨 온 생각·세력 따위가 겉으로 나타나다’(『표준』)를 의미하므로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levantar la cabeza*의 경우는 ‘부활하다’(Clave)를 뜻하므로 (2)의 스페인어와 한국어 표현은 의미가 다른 거짓 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에서 ‘머리/*cabeza*’는 다의어로서 여러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데, ‘정신, 지적 능력, 판단력’<sup>10)</sup>과 ‘일의 시작이나 처음’은 ‘머리/*cabeza*’가 공통으로 갖는 의미이다. (2)에서는 모두 상부로의 움직임을 뜻하는 ‘들다/*levantar*’ 동작동사와 함께 쓰여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나 시작을 지칭함을 알 수 있는데<sup>11)</sup>, (2a), (2b)의 성구적 의미가 상이한 것은 두 언어가 화용 상황에서 각기 다른 비유적 의미로 고착화된 결과이다.

(3) a. *La doncella está mirando a la cara a su ama para ver qué le mandan.*

(하녀는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살피기 위해 무척

10) ‘머리를 모으다’, ‘머리를 쓰다’, ‘머리를 빠뜨리다’, *dar vueltas a la cabeza* 등이 그 일례이다.

11) 개념은유 이론에 의하면 은유는 특정 개념의 구조를 다른 체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인지 수단이다. 특히 방향은유는 공간적인 방향이나 인간의 신체 구조 등에 기반을 두는데, 위/아래, 안/밖, 앞/뒤, 표면/깊이, 중심/외곽 등이 주요한 대립 개념이다. 일례로, ‘좋은 것은 위이다(*Es un pensamiento elevado*)’/나쁜 것은 아래이다(*Lo humilló por su bajeza de nacimiento*)’, ‘행복은 위이다(*Saltaba de gozo*)’/불행은 아래이다(*Tenía un bajón*)’, ‘건강은 위이다(*Su salud va hacia arriba*)’이다/질병은 아래이다(*Su salud declinaba*)’ 등의 은유 구조가 있다.

조심하고 있다)

- b. 우리 회장님 얼굴을 봐서라도 선처해 주십시오 두 분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3a) *estar mirando a la cara a alguien*은 축자적으로도 쓰이지만 성구적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무척 조심하다’(DRAE)를 뜻하는 관용표현이기도 하다. 반면, (3b) ‘얼굴을 보다’는 ‘체면을 고려하다’(『표준』)를 뜻한다. (3a)에서 얼굴이 표정이나 기색이 드러나는 신체 부위를 뜻한다면 (3b)의 얼굴은 ‘남을 대하는 얼굴’ 즉 ‘체면’을 뜻하므로 결과적으로 (3a), (3b)가 상이한 성구적 의미를 갖는다.

- (4) a. *Su mentira es un intento de guardar la cara ante el público.*  
(그의 거짓말은 대중에게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 b.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체면(體面)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표준』)을 뜻한다. 체면의 개념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4a) *guardar la cara*는 (4b) ‘체면을 지키다’의 등가어로 선택되기 쉽다.<sup>12)</sup> 그러나 (4a)의 성구적 의미는 축자적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숨다, 보이거나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다’(DRAE)를 뜻하므로 (4a)와 (4b)는 거짓 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5) a. *Se frotaba las manos ante la perspectiva de hacer un crucero.*  
(그는 크루즈 여행을 하리라는 기대로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 b. 그가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것은 손바닥 비비기에 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12) 공손이론(*cortesía lingüística*)의 바탕이 되는 ‘체면(face)’은 스페인어의 경우 *imagen (pública)*에 해당하므로 (4a)의 핵심어 *cara*와는 무관하다.



<그림 1> frotarse las manos/‘손바닥을 비비다’의 몸짓언어

(5a) *frotarse las manos*의 성구적 의미는 ‘만족스러움을 나타내다’(DRAE)이다. 이는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조바심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몸의 움직임이 음성언어화된 결과이며 한국어에는 조응하는 언어적 결과물이 없다. 그러나 조바심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비비는 몸짓은 한국인에게도 친숙하다. 한편, ‘(손과 함께 쓰여)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는 행동을 하다’(『표준』)를 뜻하는 (5b) ‘손(바닥)을 비비다’는 (5a)와 다른 화용적 쓰임을 갖기에 (5a)와 (5b)가 축자적 해석과는 다른 성구적 의미를 갖는 거짓 짝인 것이다.

(5a)와 (5b)의 비음성언어적 표현인 (그림 1)은 각각의 언어공동체에서 익숙한 몸짓이다. (5a)는 목이나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약간 기울인 채 빠르게 비비는 행위라면, (5b)는 등을 앞으로 약간 구부린 채 가슴이나 배 정도의 위치에서 손바닥을 교차하여 문지르듯 비비는 동작이다. 얼핏 보면 유사한 몸짓이므로 이 또한 해석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

- (6) a. Aprobé porque la profesora abrió la mano.  
 (나는 교수님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통과했다)  
 b. 거두어야 할 식구가 많아 하는 수 없이 이웃집에 손을 벌리기까지 했다.

(6)은 부분적인 거짓 짝의 사례이다. 여러 의미를 갖는 두 언어의 관용 표현이 일부만 상이한 쓰임을 보이는 경우를 부분적인 거짓 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6a) *abrir la mano*는 ‘1. 선물을 받아들이다 2. 너그럽게 주다 3. 엄격함을 누그러뜨리다’(DRAE)를 뜻하고, (6b) ‘손을 벌리다’는 ‘1.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2.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 3. 친해지려고 나서다’(『표준』)를 뜻하므로 ‘유화적인 행동을 하다’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6a)와 (6b)가 근본적인 유사점을 갖는다. 이는 ‘손/*mano*’이 한국어나 스페인어에서 문화보편적으로 ‘힘이나 노력, 기술’,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도움’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며 이는 (7),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7) a. *En períodos de crisis las empresas siempre cierran la mano.*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기업들이 항상 인색하다)  
 b. 신상품 개발에 손이 잠겨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다.

(7a) *cerrar alguien la mano*는 ‘인색하다’(DRAE)를 뜻하므로 부분적으로나마 (6a)와 반의적 의미로 쓰여 이항대립을 보인다. 그러나 (7b) ‘손(이) 잠기다’는 (6b)와 무관하게 ‘어떤 일에 매여 벗어날 수 없게 되다’(『표준』)를 의미한다. (7b)가 수동 구문이기 는 하나 (7a)와 (7b)의 축자적 해석만 본다면 거짓 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6)이나 (7)의 관용표현 중 한 가지만 숙지하고 있을 경우 성구적 의미를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8) a. *Buscar nuevos modos de tender la mano es importante.*  
 (도움을 줄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b. 일본은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침략의 손을 뻗었다.

- c. 손길을 뻗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 그 손길을 거부했다.

(8a) *tender la mano*는 ‘1. 악수하거나 돕기 위해 손을 내밀다, 2. 돕다’(DRAE)를 뜻하는데, 단순히 손을 뻗는 행위를 의미하는 *alargar la mano*와는 부분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한편, (8b) ‘손(을) 뻗치다’는 ‘1. 이제까지 하지 아니하던 일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다, 2. 적극적인 도움, 요구, 침략, 간섭 따위의 행위가 멀리까지 미치게 하다, 3. 어떤 일을 함께 하다’(『표준』)를, (8c) ‘손길을 뻗다’ 또한 ‘의도적으로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다’(『표준』)를 뜻하므로, (8b)와 (8c)도 의미상의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8a)에서 손을 뻗는 신체 행위로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집거나 남을 도우려는 목적이 대신 표현되었다면, (8b), (8c)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조화된 사례이다. 즉, 한국어 사례는 ‘손’이 영향력이나 도움, 간섭, 침략으로 의미가 확장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8a)와 (8b), (8a)와 (8c)는 등가어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짓 짝이라 하겠다.

- (9) a. *No me engañes, que no me chupo el dedo.*

(나를 속이지 마, 바보가 아니니까.)

- b. 형이 당장은 직장에서 쫓겨나 손가락을 빨겠지만 곧 새로운 직장을 찾을 거니 걱정 말자.

(9a) *chuparse el dedo*는 갓난아기들이 손가락을 빠는 행동에서 유래하여, ‘속이기 쉽고 어리석어 보이다’(DRAE)의 성구적 의미를 갖는다. 즉 아기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게 된 것으로, 이 또한 (5)처럼 신체 행위의 음성언어적 표현이 비유어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반면, (9b) ‘손가락(을) 빨다’는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서 ‘옆에서 구경만 하거나 궁핍한 생활을 하다’<sup>13)</sup>를 뜻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두 언어가 상이한 상황에서 해석한 결과로 이와 같은 거짓 짝의 관계가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 (10) a. El hombre hace dedo para trasladar a su hijo a Concepción.  
(남자는 아들을 Concepción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동차 무료편승을 한다)  
b. Es bueno hacer dedos, aunque sea sobre la mesa, ya que no tengo piano.  
c.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를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다.

(10a) hacer dedo는 ‘자동차 무료 편승(autostop, hitchhike)을 하다’(DRAE)를 뜻하고, (10b) hacer dedos는 ‘피아노 같은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기 위해 손가락 움직임을 연습하다’(DRAE)를 의미한다. 이들은 (10c) ‘손가락질하다’의 성구적 의미인 ‘남에게 알보이거나 비웃음을 당하다’(『표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핵심어나 구문 구조로 볼 때 (10)은 합당한 등가어 관계로 보이기 쉬운데, (10c)의 온전한 스페인어 등가어는 señalar a alguien con el dedo이므로 축자적 해석만으로 유추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11) a. Se encogió de hombros por toda respuesta.  
(그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b.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말에 어깨가 으쓱거린다.  
c. 아이는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안 챙겨와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11a) encoger alguien los hombros/encogerse alguien de hombros는 ‘1. 무서울 때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 2.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거나 하고 싶

---

13) 이재운 외, 『우리말 속어 1000가지』 (<http://100.daum.net/book/346/list>)

지 앓음의 표현, 3. 듣거나 본 바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DRAE)을 의미한다. 반면, (11b) '어깨가(어깨를) 으쓱거리다'는 '뺨내고 싶은 기분이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다'(『표준』)를 뜻하고, (11c) '어깨가 움츠러들다'는 '떳떳하지 못하거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분을 느끼다'(『표준』)를 가리킨다. 한국어의 경우, 어깨를 들먹거리는 '으쓱거리다'와 오그라드는 '움츠러들다'로 그 움직임을 구분하여 상이한 의미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스페인어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축자적인 해석만으로 두 언어 간에 거짓 짝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 (12)a. Como se entere mi padre de que he salido sin permiso, se me va a caer el pelo.  
 (우리 아버지가 내가 허락 없이 외출했다는 것을 아시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b. 일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머리가 빠지겠다.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다’(DRAE)를 뜻하는 (12a) *caérsele a alguien el pelo*와 ‘일이 복잡하거나 어려워 신경이 쓰이다’(『표준』)를 뜻하는 (12b) ‘머리가 빠지다’ 또한 거짓 짝으로서 학습자나 번역자의 그릇된 의미 추정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이다.

정서적 충격이나 긴장,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가 탈모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이다. 다만 탈모의 원인을 ‘젓값’에서 찾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찾는지에 따라 한국어와 스페인어 관용표현의 성구적 의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탈모라는 결과로써 잘못된 일이나 과도한 일이라는 원인을 강조하는 은유 구조는 동일하다.

- (13)a. Si no lloras con esta película, tienes pelos en el corazón.  
 (네가 이 영화로도 울지 않으면 무감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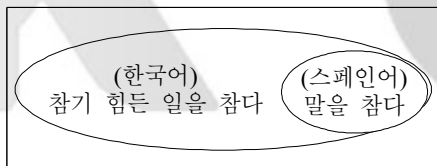
b. 양심에 털 난 인간이 이렇게나 많다니.

(13a) tener pelos en el corazón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쓰임을 보인다. ‘1. 배포가 크고 용기 있다, 2. 비인간적이고 무감각하다’(DRAE)를 뜻하므로 맥락에 따라 상이한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13b) ‘양심에 털 나다’는 ‘죄의식이 없다’, ‘양심이 없다’와 동의어로 기능하므로 항상 부정적인 상황이나 행동에 주어지는 평가이다.<sup>14)</sup> (13a)와 (13b)를 거짓 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착하고 올바른 마음씨’와 동의어로 기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마음씨’는 스페인어에서도 (buen/mucho) corazón으로 보고 사랑이나 친절함 같은 선한 감정과 동의어로 취급된다. 이는 심장 > 마음 > 양심으로 의미가 확장된 결과로 판단된다. (13a)와 (13b)가 경우에 따라 모두 부정적인 해석을 갖지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13a)는 긍정적인 가치 평가의 기능도 있으므로 이들은 부분적인 거짓 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a. Me mordí la lengua porque si no, nos hubiéramos peleado.

(나는 말을 꼭 참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싸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b. 어머니는 우리 삼 남매를 키우기 위해 혀를 깨물며 그 모진 삶을 살아오셨다.



<도식 1> 부분적인 거짓 짝 관계도: ‘혀를 깨물다’와 *morderse la lengua*

14) 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실질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는 표현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축자적으로 ‘혀를 깨물다’를 의미하는 (14a) *morderse la lengua*는 성구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참다’(DRAE)를 뜻하고, (14b) ‘혀를 깨물다’는 ‘어떤 일을 힘들게 억지로 참다’(『표준』)를 뜻하므로 (14b)가 (14a)의 의미를 아우르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여 (도식 1)과 같은 부분적인 거짓 짝의 관계를 이룬다.

*Lengua*는 신체의 일부분인 ‘혀’이자 ‘언어’를 뜻하므로 이는 (14a)의 성구적 의미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4b)의 ‘혀를 깨물다’는 ‘이를 악물다’와 유사하게 힘겨운 일을 할 때 턱에 힘이 들어가는 신체 반응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용표현이므로 이들을 형성한 인지 구조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15)a. Intenta hincar el diente a las tierras de su familia.

(그는 가족의 땅을 가로채려 한다)

b. Creo que ya es momento de hincar el diente a este trabajo.

(내 생각엔 이제 이 일에 전력으로 임할 때다)

c.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이도 안 들어가.

(15a), (15b) *hincar/meter el diente*는 긍정문으로 ‘1.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2. 씹기 어려운 것을 먹다, 3. 남의 재산을 가로채다, 4. 험담하다’(DRAE)를 뜻하는 반면 (15c) ‘이도 안 들어가다’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여도 도무지 반응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않다’(『표준』)의 의미로 부정문을 구성한다. 보다시피 이들은 성구적 의미와 문형이 상이하므로 한 언어를 기준으로 다른 언어의 관용표현을 판단할 경우, 읽거나 쓰기의 오류로 이어지기 쉬운 대표적 사례이다.

치아는 가장 원초적인 공격 무기이고 *morder*와 동의어인 *hincar el diente*는 먹어서 소유화하는 행위의 전제가 되는 동작이므로 (15a)와 (15b)의 인지 구조가 이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애

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15c)는 그 정도로 단단한 존재임을 가리키지만 이는 외면이 아닌 내적 특성의 비유적 표현이다. 따라서 언어적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 것이다.

- (16)a. El mundo se rasca la barriga frente a la tragedia de Siria.  
(전 세계가 시리아의 비극을 앞에 두고 빈둥거리고 있다)  
b. 그도 이제는 가난한 시절 다 보내고 배 두드리며 세월 좋게 산다.

(16a) *tocarse/rascarse la barriga*는 무의미한 행위를 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음성언어화한 것으로 ‘빈둥거리다’(DRAE)를 뜻한다.<sup>15)</sup> 한편, (16b) ‘배(를) 두드리다’는 부른 배를 어루만지는 모습에서 유래하여 ‘생활이 풍족하거나 살림살이가 윤택하여 안락하게 지내다’(『표준』)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성구적 의미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거짓 짝에 해당한다. *Tocarse/rascarse*와 ‘두드리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배를 만진다는 큰 틀은 다르지 않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짝이다.

- (17)a. No pienses que regalando el oído a tu jefe te van a ascender.  
(네가 상사에게 아첨하면 너를 승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b. 책을 보는 체하면서 두 사람 말에 귀를 주었다.

‘아부하다’(DRAE)를 뜻하는 (17a) *regalar a alguien el oído*는 (17b) ‘귀를 주다’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지만 (17b)는 ‘1. 남의 말을 엿듣다, 2. 남에게 살그머니 알려 조심하게 하다’(『표준』)를 뜻하므로 이들의 의미는

---

15) DRAE에 의하면 *tocarse la barriga*와 *rascarse la barriga*가 동의어지만 후자가 더 빈번한 쓰임을 보인다. 이는 google 문장단위 검색 등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다.

상이다. (17a), (17b) 모두 청각기관인 귀를 남에게 준다는 비유를 통해 ‘(남의 이야기를) 듣다’를 뜻하게 되는데, (17a)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은유가 더해졌다. 즉 남의 말을 순순히 경청하는 것으로써 그를 기쁘게 해주려는 노력까지 비유적으로 뜻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17a)와 (17b)의 거짓 짝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 (18) a. *Se disculpó con tanta torpeza que se echó la tierra en los ojos.*  
 (그가 너무 어설프게 사과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b.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18a) *echarse la tierra en los ojos*는 ‘말다툼이나 작업 중에 뜻하지 않게 상황을 악화시키다’(DRAE)를 뜻하고, (18b) ‘눈에 흙이 들어가다/덮이다’는 ‘죽어 땅에 묻히다’(『표준』)를 의미하는데, 이는 흙을 덮는 매장 절차의 환유적 결과물이다. (18a)의 경우는 실수로 눈에 흙이 들어가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근거로 구조화된 관용표현으로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수’와 그 결과인 ‘상황 악화’가 성구적 의미의 핵심을 이룬다. 반면, (18a)는 매장의 환유적 표현이므로 (18)의 사례들 또한 거짓 짝의 관계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친족어 관계가 아닌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신체어 관용표현에도 우연에 의해 형성된 거짓 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류보편적인 인지체계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는 한편 몸과 같은 기초적인 경험 영역에 대한 인간의 인지가 언어공동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일깨워주는 결과이다.

## 5. 결론

Lakoff와 Johnson은 육체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경계는 명료하지 않아서 신앙, 가치관, 관습, 주변 환경 등과 관련된 것들은 인간의 인지시스

템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속체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문화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세상’은 그 안에 이미 우리 문화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2003:57)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간은 인지 시스템에 의해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 무형의 가치 등을 개념화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문화보편적이거나 문화특수적인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관용표현 연구는 언어와 사고, 외부 세계 간에 존재하는 상호적 관계를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방식과 관련하여 Cuenca와 Hilferty(1999:15)는 “사고는 인간의 인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이며, 이는 신체화된 경험에서 비롯되어 그 경험에 따라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고, 이는 “인간의 인지시스템의 핵심이 감각과 신체의 움직임,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에 직접적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관용표현은 인간의 인지 체계에 의해 구조화된 경험의 반영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용표현에는 이 경험을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신체어 관용표현의 거짓 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간의 몸과 몸의 움직임 같은 인류보편적인 경험도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인지 구조에 의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신체어 관용표현에서 형태상으로는 유사하지만 그 의미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거짓 짝을 비교·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언어 양상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과 번역에서 주의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거짓 짝은 친족어 관계의 언어들에서 단일 어휘로 존재하지만, 인류 보편적인 인지 구조에 의하여 한국어와 스페인어 같이 계통적으로 무관한 언어에서도 형태나 의미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가적 관용

표현은 물론 거짓 짝 관계의 사례도 발견된다. 거짓 짝의 경우는 특히 구분이 어려워 학습자의 주의를 요하는데, 화용적 쓰임을 고려한 세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상의 차이가 가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용표현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특정 언어와의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한 추측을 피하고 약정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용표현이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부분적인 거짓 짝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장의 관용표현에서 거짓 짝의 존재를 밝히고, 그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페인어 학습자나 번역가들에게 언어 간 간섭 현상을 일부나마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경희(2008). 스페인어 어휘학습과 영어 동족어, <스페인어문학> 47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9쪽~27쪽.
- 유은정(2008). 스페인어 가짜 동족어 사용의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38호, 이중언어학회, 285쪽~304쪽.
- 이재운(2008). 『우리말 속어 1000가지』. 서울: 예담. (<http://100.daum.net/book/346/list>)
- Alonso dos Santos, O.(2012). *Los falsos amigos del inglés*. Granada: Emgraf.
- Alvar Ezquerro, M.(2003). *La enseñanza del léxico y el uso del diccionario*, Madrid: Arco Libros.
- Buitrago Jiménez, A.(1999). *Diccionario de dichos y frases hechas*, Madrid: Espasa Calpe.
- Cantera Ortiz de Urbina, J., Trives, F. R. y F. Heras Díez(1998). *Diccionario francés-español de falsos amigos*, Alicante: Universidad de Alicante.
- Chacón Beltrán, R.(2001). *La enseñanza de vocabulario en inglés como L2: el efecto del énfasis en la forma lingüística en el aprendizaje de cognados falsos*. Tesis doctoral, Sevilla: Universidad de Sevilla. (<http://fondosdigitales.us.es/tesis/tesis/347/la-ensenanza-del-vocabulario-en-ingles-como-l2-el-efecto-del-énfasis-en-la-forma-lingüística-en-el-aprendizaje-de-cognados-falsos/>)
- Chaminzo Domínguez, P.(2009). Los falsos amigos desde la perspectiva de la teoría de



- conjuntos, *Applied Linguistics Now: Understanding Language and Mind*, Almería: Universidad de Almería, 1111-1126. (<https://viancep2012.files.wordpress.com/2012/10/actasalmeria.pdf>)
- Corpas Pastor, G.(1996). *Manual de fraseología española*, Madrid, Editorial Gredos.
- Coseriu, E.(1977). *Principios de semántica estructural*. Madrid: Gredos.
- Cuenca, M. J. y J. Hilferty(1999). *Introducción a la lingüística cognitiva*, Barcelona: Ariel.
- Feijóo Hoyos, B. L.(1992). *Diccionario de falsos amigos*, São Paulo: Enterprise Idiomas.
- Fernández Bechara, S. et al.(2002). *¡Ojo con los falsos amigos! Diccionario de falsos amigos en español y portugués*, São Paulo: Ed. Santillana.
- Gallegos Rosillo, J. A.(2008). El vocabulario jurídico francés: las falsas equivalencias, *Traducción y Cultura. Lenguas cercanas y lenguas lejanas: los falsos amigos*, Málaga: Encasa. 91-128.
- García Yebra, V.(1994). *Traducción: historia y teoría*, Madrid: Gredos.
- Gonzalo Velasco, M.<sup>a</sup> E.(2012). *Galicismos y falsos amigos totales entre el francés y el español*, Lyon: La Clé des Langues.
- Lado, R.(1973). *Lingüística contrastiva: Lenguas y Culturas*, Madrid: Ediciones Alcalá.
- Lakoff, G. y M. Johnson(2003), *Metaphors we live by*.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나익주 역[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 Luque Toro, L.(2013). Falsos amigos entre italiano y español en su uso pragmático, *Language Design* 15, 77-89.
- Martín Sánchez, M.(1997). *Diccionario del español coloquial*, Madrid: Tellus.
- Moliner, M.<sup>a</sup>(2007).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Madrid: Gredos.
- Mounin, G.(1982). *Diccionario de la lingüística*, Barcelona: Ed. Labor.
- Nagy, W., Garcia, G., Durgunogiu, A. y B. Hancin-Bhatt(1993). English-Spanish bilingual students' use of cognates in English reading.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5(3), 241-259.
- Penadés Martínez, I.(1999). *La enseñanza de las unidades fraseológicas*, Madrid: Arco Libros.
- Pérez Velasco, J. M.(1995). Los falsos amigos: adquisición de lenguas y cambio lingüístico, *Actas del XI Congreso Nacional de Lingüística Aplicada*, Valladolid: Universidad de Valladolid, 597-603.
- Polo, J.(2006). Treinta años después complementos a una sección hispano-francesa de parónimos interlingüísticos, *CAUCE,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logía y su Didáctica*, 29, 347-357.
- Postigo Pinazo, E.(1997). *Estudio contrastivo de los falsos amigos en inglés y en español*, Tesis doctoral, Málaga: Universidad de Málaga,

- Prado, M.(1989). Falsos amigos en lexicografía bilingüe. *Hispania*, 72, 721-27.  
Real Academia Española.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http://lema.rae.es/drae/>)
- Ruiz Gurillo, L.(1997). *Aspectos de fraseología teórica española*, Valencia: Universidad de Valencia.
- \_\_\_\_\_ (1998). *La fraseología del español coloquial*, Barcelona: Ariel.
- \_\_\_\_\_ (2001). La fraseología como cognición: vías de análisis, *LEA*, XXIII/1, 107-132.
- Sabino, M.(2006). Falsos cognatos, falsos amigos ou cognatos enganosos? Desfazendo a confusão teórica através da prática, *ALFA Revista de Lingüística*, 251-263. (<http://seer.fclar.unesp.br/alfa/article/viewFile/1422/1123>)
- Seco, M., Andrés, O. y G. Ramos(2011). *Diccionario del español actual*, Madrid: Aguilar-Santillana.
- Seco, M. et al.(2004), *Diccionario fraseológico documentado del español actual*, Madrid: Aguilar.
- Soares Alves, J.(2002). Los heterosemánticos en español y portugués. Un desafío a la lectura/interpretación: el caso de los "vestibulandos" brasileños, *II Congresso Brasileiro de Hispanistas*, São Paulo, ([http://www.proceedings.scielo.br/scielo.php?pid=MSC000000012002000100032&script=sci\\_arttext](http://www.proceedings.scielo.br/scielo.php?pid=MSC000000012002000100032&script=sci_arttext))
- Varela F, y H. Kubarth(1996). *Diccionario fraseológico del español moderno*, Madrid: Gredos.
- VV.AA.(2013). *Clave. Diccionario de uso del español actual*, <http://clave.smdiccionarios.com/app.php>
- VV.AA. *Oxford Learner's Dictionary* (<http://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 Zuluaga, A.(1980). Análisis y traducción de unidades fraseológicas desautomatizadas, *Introducción al estudio de las expresiones fijas*. Frankfurt am Main: Peter D.Lang, 203-220.

조혜진(Cho, Hye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시간강사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101-2107

전화번호: 02-2173-2147

전자우편: [hjtinto@hanmail.net](mailto:hjtinto@hanmail.net)

접수일자: 2017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7년 6월 3일

게재확정: 2017년 6월 16일